

기독교 대학생의 영성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Development of Spirituality of Students in Christian College

고기숙 (Ki-Sook K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to improve the spiritual development of college students by analyzing the effect of volunteer activities, smartphone addiction and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ristian college students on spiritual development.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students attending Christian University. The survey period was from September 2012 to December 31, 2013. Data analysis was done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rough SPSS.

The results are as follows. Amo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family economic level, church attendance, church attendance period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piritual development.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volunteer activities, duration of volunteering activ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piritual development.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spiritual development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at various efforts should be made to promote church attendance and encourage volunteer activities for promoting the spiritual development of students in Christian college. In addition, it suggested the further research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addiction and spiritual development.

Key Words : Christian college, university students, spiritual development, volunteer activities, smartphone addiction, church attendance

이 논문은 2017학년도 백석대학교 대학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Baekseok University),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문암로 76, ksko@bu.ac.kr
2017년 08월 05일 접수, 12월 05일 최종수정, 12월 20일 게재확정

1. 서론

대학생들은 최근 우리 사회의 무한경쟁 체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심각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미래에 대해 극심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불안감은 최근 악화된 사회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고용불안, 취업난으로 인한 진로 스트레스 등의 문제들과 무관하지 않겠으나, 과거에도 일부학자들 사이에서 대학생들의 심리적 공허와 불안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시절과는 달리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으나, 막상 그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심리적 불안과 방황, 공허를 느끼며, 삶의 의미와 목적도 불분명하다(박선실·이준석, 2002)는 주장이 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과반수 이상이 실존적 공허 상태에 있고(김유진, 1996),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자살을 시도하려고 할 정도로 정서적으로 취약하다(최순옥·김숙남, 2011; 강은정·이재희, 2013)는 주장도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학생들은 학업 등 여러 삶의 문제에 대한 낮은 대처능력으로 인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erry & Adams-Thompson, 2008)¹⁾. 이런 주장들을 볼 때, 우리 사회의 대학생들 중에서 삶의 의미와 꿈을 찾기 보다 점점 자신감을 잃고 무기력감과 좌절감, 우울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하게 된다.

대학생들은 사회를 이끌어 갈 주역이니 만큼,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 모두는 대학생들이 현실의 장벽과 정서적 취약함을 딛고, 무난하게 성인의 단계로 진입하여 개인의 독립성, 자주성을 확보하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 그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궁극적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여 무기력과 실존적 공허감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조삼복·김성희, 2012), 대학생의 영성 발달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왜 영성발달을 돕고자 하는가? 그동안 많은 학자들의 주장을 보면, 영적 성장에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활발한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더 건강하다(Krause et al., 2013; Mollitor et al., 2015). 영성은 인간에 대한 통합적,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

1) 미국에서도 17-27세 대학생들의 우울증 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American College Health Association(ACHA)에 의하면, 설문조사에 응한 16,000명 이상의 학생들 중 10%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여성과 남성의 각각 3.3%와 1.7%가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38 %가 우울증을 앓았다고 답했다(Berry & Adams-Thompson, 2008).

도록 돕고, 자기 이해와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내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오운수·정현태, 2013)이다. 양은미(2012)에 의하면, 영성이 발달한 학생일수록 대학에서 일반적인 교양 및 보편 지식을 추구하고, 새롭고 흥미로운 것에 몰두하며, 삶의 목표를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하였다.

휴먼서비스 분야에서도 영성은 안녕감, 정신적 건강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조삼복·김성희, 2012). 몇몇 연구에 의하면, 종교성은 우울증을 가진 개인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고(McCullough & Larson, 1999), 영성은 우울증에 대한 스트레스의 효과를 완충시킨다(Berry & Adams-Thompson, 2008)고 보고되고 있다.

영성발달의 중요성은 그동안 주로 중·노년기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조되어 왔는데, 최근 들어 대학생들의 영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양은미(2012)에 의하면, 최근 대학의 상황이 취업 위주의 직업 교육으로 변화해 가는 상황에서도, 대학생들은 영성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삶의 의미와 목표를 탐색하며 영적 성장을 위한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고 있다. 여러 학자들에 의하면, 기독교적 가르침은 빈곤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성숙한 종교인으로서 사회의 책임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김유경·김미경, 2013), 대학생의 영성 발달이 성적, 심리적 안녕, 리더십, 대학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Austin et al., 2011, 양은미, 2012, 재인용).

영성발달을 돕기 위한 노력에서 우선 되어야 할 것은, 영성발달과 관련된 주요 요인을 밝히는 일이다. 사회기관의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할 경우, 개인의 안녕은 물론, 종교적 신념과 활동이 증가할 수 있다. Meier and Stutzer(2008)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타인을 돕는 것은 더 나은 개인적 안녕을 위한 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은 사람들 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음을 발견하였다. Kim(2006)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밝혔는데, 이는 사회적 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종교적 신념과 동기의 변화가 오고, 종교적 활동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원봉사 참여는 인적 자원, 사회적 상호작용, 종교성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주장한 학자들도 있다(Wilson and Musick, 1997). 우리나라 연구들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이 영성발달에 관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주장들이 있다. 박현정(2005)은 자원봉사활동의 유지기간이 길수록,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일수록 영성 수준이 높다고

하였다.

영성발달과 관련한 요인으로, 최근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일상생활, 문화, 관계 등을 바꾸어 놓은 스마트폰 사용 특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스마트폰 사용과 영성발달의 관계는 연구가 많이 축적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승범(2015)에 의하면, 많은 현대인들은 스마트폰 등과 같은 첨단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면서 고독의 능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고독의 훈련을 강조하였다. 고독의 훈련이란 스마트폰이 만들어 내는 소음으로부터 떨어져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고독 능력의 회복이 청소년들의 신앙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고독의 훈련을 통해 자신, 타인, 하나님과의 관계 능력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Ko(2015)는 대학생들이 스마트폰 사용에 탐닉하면서 스마트폰이 우상이 되어감을 느끼고, 영적 죄의식의 둔감화, 영적 생활의 방해, 신앙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어떤 연구자들은 영적 안녕감 중에서 실존적 안녕감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이 낮아짐을 주장하기도 하였다(박진희·전요섭, 2013; 박명준·신성만, 2014).

이외에도 다양한 일반적 특성들이 영성발달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고학년일수록, 영적 건강이 높고(이화인, 2002), 가정의 경제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신앙성숙이 가장 높았고, 경제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서 성숙성숙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도 있다(정숙희, 2013). 그동안 기독교 대학생의 영성과 관련하여 그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기독교 대학생(청소년 포함)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기독교 대학생의 영적 안녕, 신앙성숙도, 자살생각, 행복감, 스마트폰 과다 사용문제, 삶의 만족도 등에 관한 연구들이 있었다(공은숙·서혜석, 2010; 이성범, 2011; 박진희·전요섭, 2013; 강은정·이재희, 2013; 정숙희, 2013; 신승범, 2015; 백은령·손병덕, 2017). 이런 연구 경향을 볼 때, 기독교 대학생의 영성발달에 관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고, 또한 관련된 주요 요인들을 밝혀내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대학 재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스마트폰 중독, 일반적 특성들이 영성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대학생의 영성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가 되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정된 연구문제는 첫째, 자원봉사활동은 영성발달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가? 둘째, 스마트폰 중독은 영성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어떤 일반적인 특성들이 영성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영성의 개념

영성은 기독교 분야 뿐 아니라, 일반적인 학문 분야에서도 아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그 중 사회복지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Canda(1990)는 광의 차원에서 볼 때, 영성은 생물학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면들을 포괄하는 인간 삶의 과정으로서, 인간다움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좁은 의미에서 영성은 개인 및 집단 체험의 영적인 요소와 관련된 것으로, 개인이 의미를 추구하고, 자신, 타인, 우주, 존재적 근거, 윤리적으로 성숙한 관계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여기에서 영성은 어떤 특정한 종교, 사상, 신학 등에 제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기독교인 사회복지학자 Charlotte Towle(1945)는 인간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물질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인 면들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하면서, 영성은 영적 욕구들, 교회 중심적인 자원 활용, 삶의 의미, 목적의식의 개발, 사회적 책임감의 형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박승희·이혁구 외 역, 2003: 111~115, 재인용). 정숙희(2013)는 그의 연구 전반에서 영성은 인간의 전인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고, 자신, 사회,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하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삶이 활기차고 목적을 가지며, 충만한 느낌을 갖는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영성은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가지며, 자아초월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믿음의 공동체와 더 넓게 이웃 및 사회와 조화로운 관계성을 추구해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영성발달 관련 요인들

(1) 자원봉사활동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과 영성발달²⁾의 관계는 주로 영성 발달이 잘 이루어질수록 개인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더욱 참여한다는 것이었다. 관련된 주장들을 보면, 자원봉사가 종교성과 안녕감 사이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중재하고, 신앙심을 가진 종교인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안녕감도 더 높다(Mollidor et al., 2015). 종교적 가치는 자원봉사의 동기를 강화하고, 자원봉사 의욕을 높인다(Hoge et al. 1998; Johnston, 2013). Kim(2006)은 1998년 General Social Survey 자료를 사용하여, 영성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영성과 자원봉사활동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영성이 자원봉사활동 참여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 높은 수준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개인 내적인 자아로 축소되기보다는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종교성을 실천한다고 볼 수 있다.

예배 등의 종교 활동은 모든 인간관계, 정의, 사회에 대한 신학적, 인본주의적 시각을 갖게 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한다(Hill & Dulk, 2013)는 주장이 있다. 어떤 연구자들에 따르면, 개인이 종교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종교적 네트워크에 속해 있을 경우, 자원봉사를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한다(Lima & MacGregorb, 2012). 이를 풀이하면, 종교 조직 및 기관들에서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사람이 그 종교 기관(종교적인 대학, 종교적 성격을 가진 모임이나 조직 등)에 속해 있을 경우, 그 기관(조직)에서 운영하는 사회봉사활동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연구자들도 청소년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의 개인들이 종교 공동체에 참여할 경우, 자원봉사, 다양한 시민활동 등에 참여하게 된다고 보았다(Toppe et al., 2002, Hill & Dulk, 2013, 재인용). 미국의 경우, 많은 교회들이 자원봉사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고, 높은 수준의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이웃 사랑, 이타주의를 실현하는 자원봉사활동에 관여하고 있다(Lincoln & Mamiya 1990, Hill & Dulk,

2) 영성이라는 용어의 기원은 종교적인 전통에서 기원을 추적할 수 있는데, 라틴어의 spiritus에서 유래하였다. 영성은 인간의 깊은 내적 의식이고, 우주가 거하는 성스러운 장소를 의미한다. 또한 영적 개인은 도덕적 질서를 추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도덕적 이상을 실천하므로, 영성은 도덕성과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다(Kim, 2006).

2013, 재인용).

지금까지는 영성이 자원봉사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연구들을 보았다면, 이제부터 자원봉사활동이 영성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의 연구들이 비록 관계의 방향은 다를지라도, 두 변수간의 관련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검토라고 생각한다.

Kim(2006)은 영성과 자원봉사활동 두 변수의 인과관계의 방향이 서로 바뀌는 것도 성립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사회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이 자원봉사의 동기와 정신을 증가시키고, 종교성에 영향을 주면서 종교기관에 더 적극적으로 출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현정(2005)은 자원봉사활동과 영성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자원봉사활동의 여러 특성들이 영성 수준을 높인다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봉사활동 유지 기간이 길수록, 정기적으로 봉사 활동을 하는 경우일수록 영성의 정도가 높다. 그리고 자원봉사 업무 적절성, 자원봉사 대상자와의 관계만족, 자원봉사 동료와의 관계 만족, 자원봉사 직원과의 관계 만족이 영성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강태선(2015)은 청소년의 자원봉사 활동성, 영성, 사회적 책임성의 관계를 다루면서, 자원봉사활동이 영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종교가 있는 청소년이 없는 경우보다 사회적 책임성, 영성, 자원봉사 횟수, 참여수준, 필요성, 만족도, 지속성이 높다고 하다.

이상에서 검토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자원봉사활동과 영성발달의 관계를 조사해보는 일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2) 스마트폰 중독

최근 기독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종교적 영역에도 디지털 미디어의 영향은 거세게 밀려 들었다. 현재 인터넷, 스마트폰의 발달로 수많은 성경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들이 개발되어 있고, 전세계 수십억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 성경 앱에서는 강력한 디지털 미디어 기술을 활용하여 말씀을 매우 역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소돔과 고모라를 공부할 때, 비디오를 클릭하면 수많은 상호작용 요소가 작용하여 소돔과 고모라의 내용이 펼쳐진다(Crosby, 2012). 즉, 기존 성경은 문자로만 되어 있는데 반해, 스마트폰 앱에서는 다양한 화면, 게임, 영상, 상호작용 요소들을

통해 입체적, 실제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스마트폰의 출현에 따라 종교, 신앙생활의 지평도 크게 달라졌고, 여기에는 긍정적이고 편리한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손 안의 컴퓨터인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록 더 기기에 의존, 중독되어 갈 수 있다는 맹점이 도사라고 있다. 싱가포르 대학생 551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대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더 심한 기기 의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모바일 인터넷 사용, 문자 메시지 활용이 스마트폰 의존과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Lin et al., 2015).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이 개인의 영적 생활을 저해하고 있음을 우려하는 주장들이 나타나고 있다. 박진희·전요섭(2013)은 신령한 예배 시간에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을 함으로써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공동체 지체들과의 교제 및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등 신앙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도 제시되고 있다.

스마트폰 중독이 영성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면, 고도로 발달된 디지털 미디어 시스템이 개인의 자아성장 및 발달을 저해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주장이 있다. Keen(2012)은 디지털 미디어 시스템이 개인의 자아성장 및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신승범, 2015, 재인용). 개인들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경우, 고독과 관계의 능력을 침범당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자신, 이웃,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신승범, 2015). 기독교 대학생들이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하여 경험하는 심리·영적 갈등 경험을 연구한 Ko(2015)의 연구에서도, 대학생들은 스마트폰이 자신의 우상이 되어가는 듯하고, 과다한 스마트폰으로 인하여 죄의식의 둔감화, 영적 생활의 방해, 신앙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박명준·신성만(2014)은 영적 안녕감이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 중독(인터넷 게임, 사이버 섹스, 스마트폰 중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영적 안녕감 중 실존적 안녕감이 세 유형의 디지털 미디어 중독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반면, 종교적 안녕감은 디지털 미디어 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종교적 안녕감은 수직적 차원으로 신과의 관계 속에서 신이 자신을 돌봐주고 있다는 믿음을 의미하고, 실존적 안녕감은 수평적 차원

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갖고, 삶에 대한 만족감과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의미한다 (Paloutzian & Ellison, 1982, 박명준·신성만, 2014, 재인용). 박진희·전요섭(2013)의 연구에서도, 기독교 청년들의 영적 안녕감 중에서 종교적 안녕감은 스마트폰 중독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지 않았고, 실존적 안녕감과 스마트폰 중독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이상 두 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 종교적 안녕감은 스마트폰 중독과 어떤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고, 실존적 안녕감이 스마트폰 중독에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들에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의식을 갖지 못하고, 삶에 대한 회의, 현실 불만족,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경우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중독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스마트폰 중독과 영성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고, 아직 초기 단계라서 어떤 확실한 경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이 영성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해 보는 일은 필요하다고 본다.

(3) 일반적 특성

다양한 일반적 특성들이 영성발달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학년에 따른 영성발달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이화인(2002)은 고학년일수록, 종교가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영적 건강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김귀성(2014)의 연구에서는 학년별 차이에서 영성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기독교 청소년의 학교 성적이 삶의 만족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가 있는데(백은령·손병덕, 2017), 이 연구의 경우 비록 종속변수가 삶의 만족도이나, 영성이 삶의 만족도를 포함하며 아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참고해 볼 만하다고 판단하였다.

경제적 상황과 관련하여, 정숙희(2013)의 연구에서 신앙성숙은 경제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경제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의 성숙성숙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밝혔다. 또, 기독교 청소년의 가정형편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백은령·손병덕, 2017)를 볼 수 있다.

종교적 특성과 관련하여 노인의 영적안녕, 영적요구 및 우울 간의 관계를 연구한 송

민선·김남초(2011)에서, 영적안녕은 종교가 없는 경우에 비해 종교가 있는 경우에 점수가 높았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종교 유무에 따라 영성(평정심, 영적 자각, 보편적 세계관)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양은미, 2012). 도박을 위해 사행산업시설을 이용하거나, 단도박을 위해 병원이나 상담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종교 유무에 따라 영성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심수현, 2012). 종교가 있는 학생들과 종교가 없는 학생들을 비교한 연구에서, 영적 안녕정도는 종교가 있는 학생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숙희·유장춘, 2006). 종교의식 참여 정도에 따라 영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종교 활동을 활발하게 참여할수록 영성 수준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이명화·강희경·박진경, 200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일반적 특성 변수들 중에서 학년, 학업 성적, 경제적 수준, 종교적 활동 수준 등이 영성발달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파악해 볼 수 있다.

III. 연구모형 및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문헌 검토를 통해서 자원봉사활동 특성들(자원봉사 참여 여부,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자원봉사활동 참여 기간), 스마트폰 중독, 일반적 특성들(학년, 학교 성적, 가정경제수준, 교회출석유무, 출석기간, 스마트폰 하루사용시간 등)이 영성발달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밝혀 내었다. 이에 독립변수들은 자원봉사활동, 스마트폰 중독, 일반적 특성 변수들로 선정되었고, 종속변수는 영성발달로 선정되었다. 참고로 회귀분석에서는 경로분석과 달리 독립변수들은(자원봉사활동, 스마트폰 중독, 일반적 특성) 독립적 관계를 가지므로, 어떤 관계설정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변수들의 관계를 모형으로 도식화하면 다음 Figure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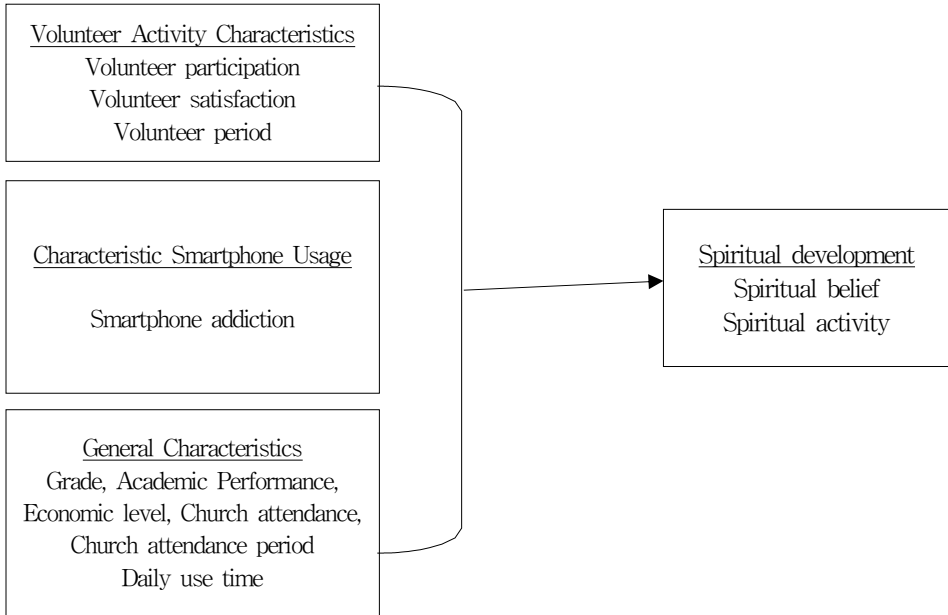


Figure 1. Study Design

2. 연구의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경기, 충남 지역 소재 4년제(B, H, N, S 대학교) 및 2년제(B, K 대학) 기독교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³⁾ 자료수집 방법은 비확률표집법 중 의도적 표본추출⁴⁾을 사용하였다. 연구자가 각 대학의 교수, 강사들을 섭외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 자료 수집을 의뢰하였다. 또, 연구자가 직접 대학생들을 접촉하여 설문 배포 및 작성을 의뢰하였다.

3) 본 연구의 대상은 기독교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다양한 종교 혹은 무교인 경우에도 포함된다. 이 학생들은 비기독교인들이라 하더라도, 대학에서 실시하는 채플, 기독교 관련 교양, 인성 선교 및 기독교적 상담 활동을 다양하게 접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인이라는 결단은 하지 않은 상태이더라도, 기독교적 영성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판단하였기에, 이들을 포함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

4) 의도적 표본추출방법은 연구자의 의도에 의해 ‘전형적이라고 판단되는’ 표본을 선택하는 방법이다(김영중, 2001: 333).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기독교대학, 학부, 전공(학과) 등을 고려하여 표본추출을 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이고 총 820부의 설문을 수집하였다. 그 중 부실 응답 설문을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사용된 설문은 702부이다.

3. 측정도구

(1) 영성 발달

영성발달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신앙심 척도(The Shepherd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Basset, Sadler, Kobischen, Skiff, Merrill, Atwater, and Livermore(1981)이 제작하였고, 이성범(2011)이 번안한 것이다. 이 척도는 기독교인의 신념 차원(믿음의 기초적인 주제)과 행동차원의 문항들(기독교인으로서 행동, 가치, 태도 포함),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들은 5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고, 문항의 예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고 그것을 매일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평안, 확신, 소망과 같은 것들을 얻는다고 믿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함으로써 영생을 얻는다.' '나는 신앙과 가치관이 나와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한다.' 등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8$ 로 높은 수준이었다.

(2) 스마트폰 중독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마트폰 중독 척도는 강희양과 박창호(2012)가 개발한 스마트폰 중독 척도이다. 이 척도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고, 총 2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척도는 5점 척도이고, 하위 요인은 몰입(6문항), 생활문제(5문항), 일상성(4문항), 과용(6문항), 관계성(2문항) 등이다. 5점에 가까울수록 중독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문항의 예를 한가지씩 들어 보면, '몰입'의 문항 예로는, '스마트폰으로 경험하는 세상 혹은 삶이 더 의미가 있다'가 있고, '생활문제'는 '스마트폰 때문에 학교생활이나 학업에 문제가 있다'가 있다. '일상성'은 '스마트폰을 하다 보면 눈이나 손목 등에 통증을 느낀다'가 있고, '과용'은 '스마트폰에 투입하는 비용이 생활에 부담을 준다'가 있다. '관계성'은 '스마트폰을 통해서만 알고 있는 친구와 친하다'가 있다. 참고로, 본 척도는 스마트폰 중독 연구 분야에서 초기 척도로 절단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신뢰도 검증 결과, Cronbach's $\alpha = .92$ 로 나타났고, 하위 요인

들의 경우에는 몰입은 .76, 생활문제는 .78, 일상성은 .77, 과용은 .70, 관계성은 .72였다.

(3) 자원봉사활동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원봉사활동 특성 변수는 자원봉사 유무, 자원봉사만족도, 자원봉사활동기간이다. 자원봉사 유무는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음과 없음을 구분하여 질문한 후, 이를 더미변수 처리하였다(경험 있음 1, 경험 없음 0 처리)하였다. 자원봉사활동 만족도는 자원봉사활동경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매우 만족한다(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질문하였다. 자원봉사활동기간은 지금까지 활동을 한 총 기간을 몇 년, 몇 월로 질문한 뒤, 분석 단계에서 월로 환산하여 투입하였다.

(4) 일반적 특성들

일반적 특성들 중에서 학년은 '1~4학년' 중에서 해당하는 곳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학교성적은 응답자의 주관적인 평가로, '하, 중하, 중, 중상, 상' 중에 해당하는 곳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가정경제수준 역시 응답자의 주관적인 평가로, '하, 중하, 중, 중상, 상' 중에서 해당하는 곳에 응답하도록 하였고, 교회출석에 대하여 여부를 응답하도록 한 뒤, 더미변수(교회출석 1, 비출석 0) 처리하였다. 교회출석 기간은 년월로 질문한 뒤, 총 월수로 환산하여 처리하였다. 스마트폰 하루사용시간에 대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시간을 1, 2, 3...등 시간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를 통해 이루어졌다. 변수가 표준화된 척도로 이루어져 있는 스마트폰 중독 및 영성발달 문항들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Chronbach's α 값을 구하였다. 인구학적 특성 변수들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및 기술분석을 실시하였고,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의 주요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및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끝으로, 자원봉사활동 특성, 스마트폰 중독이 영성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enter 방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분석

1. 인구학적 특성 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345명(49.1%), 여자가 350명(49.9%)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나이는 만 20세 이하 327명(46.6%)로 가장 많았고, 만 21세가 77명(11.0%), 만 22세가 81명(11.5%), 만 23세가 94명(13.4%), 만 24세 이상이 117명(16.7%)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이 227명(32.3%), 2학년이 246명(35.0%), 3학년이 135명(19.2%), 4학년이 80명(11.4%)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기독교 284명(40.5%), 천주교 49명(7.0%), 불교 28명(4.0%), 기타 3명(0.4%), 없음이 333명(47.4%)으로 없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기독교였다. 교회 출석은 출석한다가 253명(36.0%), 출석하지 않는다가 411명(58.5%)이다. 교회출석기간은 평균 약 67.6개월로, 5년 조금 넘었다. 학교성적은 하가 31명(4.4%), 중하가 112명(16.0%), 중이 298명(42.5%), 중상이 182명(25.9%), 상이 67명(9.5%)로 중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중상, 중하, 상, 하 순이었다. 가정경제상태는 하가 34명(4.8%), 중하가 154명(21.9%), 중이 395명(56.3%), 중상이 101명(14.4%), 상이 9명(1.3%)로 중이 절반 조금 넘었고, 그 다음은 중하, 중상, 하, 상의 순이었다. 스마트폰 하루 사용 평균은 7.6708시간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702

Item	Category	Frequency(%)
Gender	Male	345(49.1)
	Female	350(49.9)
	Missing value	7(1.0)
Age	20 or less	327(46.6)
	21	77(11.0)
	22	81(11.5)
	23	94(13.4)
	24 or more	117(16.7)
	Missing value	6(.9)

<continued>

Item	Category	Frequency(%)
Grade	1	227(32.3)
	2	246(35.0)
	3	135(19.2)
	4	80(11.4)
	<u>Missing value</u>	<u>14(2.0)</u>
Religion	Protestnant	284(40.5)
	Catholic	49(7.0)
	Buddhism	28(4.0)
	Etc	3(4)
	None	333(47.4)
	<u>Missing value</u>	<u>5(7)</u>
Church attendance	Attendance	253(36.0)
	Nonattendance	411(58.5)
	<u>Missing value</u>	<u>38(5.4)</u>
Church attendance period	Mean: 67.60(month) SD: 102.41	
Academic Performance	Very low	31(4.4)
	Low	112(16.0)
	Middle	298(42.5)
	High	182(25.9)
	Very high	67(9.5)
	<u>Missing value</u>	<u>12(1.7)</u>
Economic level	Very low	34(4.8)
	Low	154(21.9)
	Middle	395(56.3)
	High	101(14.4)
	Very high	9(1.3)
	<u>Missing value</u>	<u>9(1.3)</u>
Daily use time of smartphone	Mean: 7.08(hour) SD: 5.97	

2. 주요 변수 분석 결과 및 상관관계표

주요 변수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자원봉사활동 특성 변수 중 자원봉사유무는 자원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가 291명(46.0%), 없는 경우가 323명(41.5%)이었다. 두 응답 간에 큰 차이는 없었다. 자원봉사 만족도는 3.69로 보통 수

준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기간은 평균 21.78개월이었다. 스마트폰중독의 하위 요인 중 몰입의 평균은 1.76, 생활문제의 평균은 2.11, 일상성의 평균은 2.38, 과용의 평균은 2.22, 관계성의 평균은 1.66으로, 일상성이 가장 높고, 과용, 생활문제, 몰입, 관계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 전체 평균은 2.06으로, 보통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성발달의 평균은 2.68로 그렇지 않다와 보통 수준 사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n=702

Variables	Mean	SD	Minimum	Maximum
<u>Volunteer Activity Characteristics</u>	291(41.5%)			
Participation	323(46.0%)			
Nonparticipation	Missing Value: 88(12.5%)			
Volunteer satisfaction				
Volunteer period ⁵⁾	3.69	.92	1	5
	21.78	27.64	1	240
<u>Characteristics of smartphone usage</u>	2.06	.60	1	4
Immersion	1.76	.63	1	4
Life problem	2.11	.68	1	4.60
Routine	2.38	.92	1	5
Overuse	2.22	.65	1	4
Relationship	1.66	.78	1	5
<u>Spiritual development</u>	2.68	1.04	1	4.98

다음은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Table 3과 같다. 학년의 경우, 교회 출석과 부정적 관계를 보였는데, 학년이 높을수록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교회출석기간과는 정적 관계를 보였는데, 학년이 높을수록 교회출석기간은 증가하였다. 학년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하루사용시간이 증가하였고, 학년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도 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의 경우, 성적이 높을수록 가정경제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성적

5) 본 연구에서 자원봉사활동기간은 총 개월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1개월 ~ 240개월에 걸쳐 분포되어 있다. 최대치에 가까운 값들은 응답자들 중에 소수 만학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높을수록 교회출석기간이 증가하였다. 성적이 높을수록 자원봉사활동에도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의 경우, 가정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교회출석기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회출석기간이 증가할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하루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에 참여할수록 자원봉사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원봉사기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Correlation of major variables⁶⁾

	1	2	3	4	5	6	7	8	9	10
1. Grade	1.000									
2. Academic Performance	.072	1.000								
3. Economic level	.043	.114**	1.000							
4. Church attendance	-.090*	-.024	.038	1.000						
5. Attendance period	.144**	.128**	-.076*	-.068	1.000					
6. Daily use time	.111**	-.062	.017	-.043	-.022	1.000				
7. Participation	.109**	.184**	-.029	.081*	.148**	.111**	1.000			
8. Satisfaction	.063	.053	-.049	.002	.061	.025	.195**	1.000		
9. Volunteer period	.015	-.019	-.005	-.056	-.107	-.028	-.014	.170*	1.000	
10. Smartphone addiction	.017	-.047	.011	.044	-.043	.060	.067	.010	-.071	1.000

*p<.05(2-tailed), **p<.01(2-tailed), ***p<.001(2-tailed)

3. 대학생의 영성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회귀분석 전 사전검토를 위해 종속변수인 영성발달의 정규분포성과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였다. 영성발달 변수의 정규분포성은 SPSS 통계분석에서 제공하는 Stem and Leaf 분석과 왜도 및 첨도 수치를 통해 확인하였다. 영성발달 변수의 Stem and Leaf 분석(표준화잔차들의 정규분포를 보여주는 표)결과, 0을 중심으로 대체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는 편이었고(Stem and Leaf 그림은 지면관계상 생략함), 좀 더 확실히

6) 본 Table 3 및 아래 Table 4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들 중에 volunteer activity participation는 실제로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값이므로, 위 Table 2에서 제시하였듯이 표본수가 291임을 밝힌다.

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분석한 결과 왜도 = .199(표준오차 .092), 첨도=-.978(.184)으로, -2이상 2이하의 범주에 해당하였다. 이 경우 대체로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다변량 분석인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상관관계행렬을 조사하였다. 위의 Table 3에서 분석한 독립변수들간 관계를 보면, 자원봉사활동참여와 스마트폰중독, 자원봉사활동만족과 스마트폰중독, 자원봉사활동기간과 스마트폰중독의 상관관계는 각각 .067, .010, -.071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설정되어 종속변수와 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독립변수들간의 낮은 관련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대학생의 자원봉사활동 특성, 스마트폰 중독이 영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enter 방식)을 실시한 결과는 아래 Table 4와 같다. 모형적합도 $F=21.572(p=.000)$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종속변수에 대한 독립변수들의 설명력 R 제곱 =.525(수정된 R 제곱=.501)이었다. 본 연구에 투입된 여러 독립변수들이 영성발달을 52.5%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들 중에서 학년의 경우, $\beta=-.046$, $t=-.923$, $p=.357$ 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년과 영성발달의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적의 경우, $\beta=.084$, $t=1.619$, $p=.107$ 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의 경우, $\beta=-.105$, $t=-2.010$, $p=.046$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가정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영성발달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출석여부의 경우, $\beta=.119$, $t=2.397$, $p=.017$ 로 유의미하였다. 교회에 출석할수록 영성발달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출석기간의 경우, $\beta=.677$, $t=12.884$, $p=.000$ 로 유의미하였다. 교회출석기간이 증가할수록 영성발달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하루사용시간의 경우, $\beta=-.032$, $t=-.643$, $p=.52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자원봉사활동 특성 중 자원봉사여부는 $\beta=-.035$, $t=-.698$, $p=.486$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자원봉사활동 여부와 영성발달의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원봉사만족도의 경우, $\beta=.020$, $t=.396$, $p=.692$ 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자원봉사만족과 영성발달의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자원봉사 활동기간의 경우, $\beta=.126$, $t=2.473$, $p=.014$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원봉사활동기간이 증가할수록

영성발달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과 영성발달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beta=.018$, $t=.364$, $p=.716$ 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중에서, 자원봉사 유무와 스마트폰 중독 변수의 경우,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계수를 볼 때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선행연구와 다른 방향성을 보였다. 이런 이유들을 추정해 보면,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경우, 대학생들이 어떤 동기와 신념 없이 비자발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를 했다던가, 아니면 자원봉사에 참여하기는 했어도 그 활동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원봉사 기관이나 담당자, 동료, 대상자들과 갈등을 경험했을 경우에, 자원봉사 참여 자체가 영성발달에 어떤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혹은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또, 스마트폰 중독의 경우에, 성경읽기, 교회내 모임 활동 활성화, 신앙 및 네트워크 정보 공유 등의 활동을 하느라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여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섞여서 영성발달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지만) 추정치가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고 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대학생의 영성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가정 경제수준, 교회출석여부, 교회출석기간, 자원봉사활동 기간 등임을 알 수 있다.

Table 4 Regression Analysis Affecting the Development of Spirituality in College Students

Variables		Non-standardization		Standardization	t	p
		B	SE	β		
Constant		2.489	.681		3.656***	.000
General characteristics	Grade	-5.42E-02	.059	-.046	-.923	.357
	Academic Performance	9.891E-02	.061	.084	1.619	.107
	Economic level	-.142	.071	-.105	-2.010*	.046
	Church attendance, Attendance period	1.365E-02	.006	.119	2.397*	.017
	Daily use time	6.715E-03	.001	.677	12.884***	.000
Volunteer Activity Characteristics	Participation	-1.61E-03	.003	-.032	-.643	.521
	Satisfaction	-.322	.462	-.035	-.698	.486
	Volunteer period	2.696E-02	.068	.020	.396	.692
smartphone addiction	Smartphone addiction	5.962E-03	.002	.126	2.473*	.014
smartphone addiction	Smartphone addiction	3.612E-02	.099	.018	.364	.716

* $p<.05$ (2-tailed), *** $p<.001$ (2-tailed)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대학생들의 영성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대학생의 영성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주요 변수들의 특성을 요약해 보면, 영성발달의 평균은 2.6768로 3점을 보통 수준으로 볼 때, 보통 수준 조금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공은숙·서혜석(2010)이 기독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영적 안녕 평균 72.03(100점 만점) 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영성발달 수준이 다소 낮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의 대상이 기독교 대학교 재학생들이기는 하나, 앞서 밝혔듯이 비기독교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 수 있다고 본다. 기독교 대학 학생들의 영성발달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더 요구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기독교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은 41.5%가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0년 기준, 호주의 자원봉사 통계를 보면, 18세에서 24세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의 27%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이 수치는 1995년 이후 10%이상 증가한 것이다(Volunteering Australia, 2012, Mollidor et al., 2015 재인용). 호주 보다 본 연구의 대학생 자원봉사활동 경험률이 더 높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자원봉사 참여율을 조사한 결과, 21.4%로 나타났는데(볼런티어 21, 2011: 11), 이 결과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이처럼 기독교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째, 대부분의 기독교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봉사센터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독교 관련 기관(학교 포함)들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경향과도 관련되어 보인다. 셋째, 본 조사에서는 지난 1년으로 국한하지 않고, 대학생활 동안으로 질문하였기 때문에, 다소 높게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겠다.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만족도는 보통~만족한다의 사이였고, 자원봉사활동기간은 평균 1년 9개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스마트폰 하루 사용 시간 평균은 7.67 시간으로 나타났다. 2013년 모바일인터넷 이용 조사에 의하면, 스마트폰 하루 이용시간이 12-19세는 평균 2.60, 40대는 1.87시간, 50대는 1.57시간으로 나타났다(미래창조과학부,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신승범, 2015, 재인용).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월

썬 오랜 시간 동안 하루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스마트폰 중독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일상성이 평균 2.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과용의 평균은 2.22, 생활문제의 평균은 2.11, 몰입의 평균은 1.76, 관계성의 평균은 1.66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중독 전체 평균은 2.06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2점대 또한 ‘조금 그렇다’ 수준 이상이므로, 그냥 간과할 수는 없다. 하위 요인들 중에서 2점대 이상 요인들의 순서는 일상성, 과용, 생활문제 등인데, 일상성은 ‘스마트폰을 찾지 못하면 공황 상태에 빠지는 느낌이 들고, 스마트폰이 고장 나면 당황스럽고 멍해진다’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과용, 생활 문제 또한 말 그대로 지나친 사용,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다양한 생활문제들이 야기됨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연구 대상자들이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문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고, 더 들어가서 일부는 스마트폰 중독 및 의존에도 연루되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해 준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대학생의 영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일반적 특성들 중에서 가정경제수준, 교회출석 여부, 교회출석 기간 등이 영성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영성발달의 정도가 높고,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 영성발달의 정도가 높았으며, 교회출석기간이 길수록 영성발달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학년, 성적, 스마트폰 하루 사용 시간 등은 영성발달의 정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면, 학년의 경우, 학년과 영성 발달의 관계를 보고한 이화인(2002)과는 상반되고, 학년에 따른 영성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김귀성(2014)의 연구와 비슷하다. 본 연구에서 학년이 영성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온 이유를 추정해 보면, 대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채플 이수, 기독교 과목 수강, 기독교 관련 동아리 활동 등이 늘어나지만, 그와 함께 다른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예, 성적문제, 진로문제, 이성문제, 병역문제 등)이 다가오면서, 일부 학생들은 심리적 불안, 의심, 회의 등을 겪으며 영성발달의 정체를 초래하였을 수 있다고 본다. 가정경제수준의 경우, 신앙성숙은 경제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경제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의 성숙성숙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정숙희(2013)의 연구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교회출석 여부, 기간 등은 영성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 결과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정숙희·유장춘, 2006; 송민선·김남초, 2011; 양은미, 2012; 심수현, 2012)의 주장과 일치하였다. 즉, 교회에 출석하고, 기간이 길수록 영성발달이 증진된다고 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 특성 중에서, 자원봉사 유무 및 자원봉사 만족도는 영성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자원봉사활동기간은 영성발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자원봉사활동과 영성발달의 관련성을 주장한 몇몇 학자들의 주장과 일치하였다(박현정, 2005; 강태선, 2015). 이 결과는 대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더 오래 참여할수록, 이타주의, 더 나은 세계에 대한 기여와 헌신의 느낌들이 생기면서, 영성발달의 증진도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스마트폰 중독과 영성발달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이 영성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과 영성발달의 부정적 관계를 언급하거나 시사한 여러 학자들의 주장(Ko, 2015; 신승범, 2015)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영적 안녕감 중에서 종교적 안녕감은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실존적 안녕감은 스마트폰과 부정적 관계를 가졌다고 보고한 연구들(박진희·전요섭, 2013; 박명준·신성만, 2014)과는 일부 일치되는 측면이 있다.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이 영성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 연구(Ko, 2015)가 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만을 가지고 스마트폰 중독과 영성발달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두 변수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들의 영성 발달을 위한 제언을 하면, 첫째, 본 연구에서 기독교 대학생의 영성발달 수준은 보통 수준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기독교 대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예견했던 것 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대학교 및 교회 차원에서 대학생들의 영성발달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교회출석 여부, 교회출석 기간 등이 영성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최근, 기독교 및 교회의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실추되면서 많은 청년과 대학생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일이 영성 발달 차원에서 중요함을 시사해 주었다. 이

에 대학생들의 교회출석을 독려하고, 출석 기간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대학생과 교회의 접촉점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은 성인 초기의 단계로 일과 사랑의 과업을 수행하는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따라서, 교회에서도 대학생들의 이런 발달적 과업을 인식하고, 기독교 진리 및 세계관에 입각하여 일과 사랑의 과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독교와 일, 기독교와 사랑에 관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자원봉사활동은 단지 참석 여부가 아닌, 활동 기간이 오래 될수록 영성발달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자원봉사활동 기간 동안 다양한 경험(대상자와의 만남, 의미있는 관계형성과 교류, 자원봉사를 통한 자기성찰, 보람 느끼기 등)을 하는데, 이런 점들이 영성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을 교회 및 기독교대학 차원에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교회내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기관들과 긴밀한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대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동기를 갖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자원봉사센터와 긴밀한 교류 협력 관계를 맺고 대학생들을 파견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또 병원, 사회복지시설, 쉼터, 지역아동센터 등과도 연계하여 대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도록 도울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의 기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교회내 자원봉사 담당자 혹은 코디네이터가 대학생들을 자원봉사활동에 연결할 때 그들의 적성, 자아실현, 전공 등을 살펴서 그와 관련된 일감을 찾아서 연결하는 것이 좋다. 이런 활동과 더불어 교회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자원봉사활동의 원리, 방법, 사례 등을 연구하여 기독교에 기반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면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기독교대학에서 자원봉사활동을 관장하는 사회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이 자원봉사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새롭고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고, 참여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활동 소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이 영성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성찰해 보고, 그 의미를 잘 새기도록 돕는 시간을 갖도록 할 수 있다. 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활동의 기간을 늘리기 위해, 기독교대학에서도 대학생들이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때, 대학생들의 흥미, 관심사, 재능, 능력, 진로 등을 고려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기독교에 기반한 자원봉사활동의 개념, 원리, 방법, 사례 등을 교육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스마트폰의 영향은 일반 사회 뿐 아니라 종교계에도 아주 강하고 광범위하게 밀려 들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 세계에 수많은 성경 앱이 개발되어 있고, 수십억의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Crosby, 2012). 성경 뿐 아니라, 예배, 종교모임, 활동도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즉, 기독교계에서도 신앙, 선교, 활동 전 영역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스마트폰으로 인한 부정적 폐해도 존재하고, 스마트폰의 긍정적 활용 측면도 함께 섞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 혹은 중독이 영성발달에 일정한 경향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스마트폰은 시간이 흐를수록 기술이 더 발달하고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사람들에게 더 만능적이고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그와 같이 사람에 대한 스마트폰의 위력과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스마트폰 중독과 영성발달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지금과는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추후 종단연구 차원에서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과 영성발달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한계점으로 본 연구는 기독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적 표본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한 연구이므로, 이 결과를 모든 기독교 대학 재학생 및 일반 대학교 학생들에게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앞에서 밝혔듯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자원봉사 유무, 스마트폰 중독의 경우에는 영성발달과 선행연구와 다른 방향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관계들에 대해 추후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은정 · 이재희 (2013). 기독교가 대학생의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영적 안녕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 충남 1개 대학교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8(2), 7-32.
- [Kang, E. J. & Lee, J. H. (2013). Mediating Effects of Spiritual Well-being and Social Support in the Effect of Christianity on Suicidal Ide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 A Study of One University in Chungnam -. *Faith and Scholarship*, 18(2), 7-32.]
- 강태선 (2015). 청소년의 자원봉사 활동성이 사회적 책임성에 미치는 영향 -영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회와 사회복지**, 29, 51-68.
- [Kang, T. S. (2015). The Effect of Adolescents Volunteer Activity on Social Responsibility: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spirituality. *Church Social Work*, 29, 51-68.]
- 강희양 · 박창호 (2012). 스마트폰 중독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563~580.
- [Kang, H. Y., & Park, C. H. (201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martphone Addiction Inventory.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1(2), 563~580.]
- 공은숙 · 서혜석 (2010). 기독교대학생의 영적 안녕, 공격성 및 행복감과의 관계. **한국 학교보건학회지**, 23(2), 266-275.
- [Kong, E. S. and Seo, H. S.(2010).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Spiritual well-being, Aggression, and Happiness of the Students in Christian Universities.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23(2), 266-275.]
- 김귀성 (2014). 대학에서 영성교육 과제와 전망: 원광대학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신학과 철학**, 24, 45-75.
- [Kim, K. S. (2014). Tasks and Prospect of Spiritual Education in the University : Focused on WonKwang University. *Theology and Philosophy*, 24, 45-75.]
- 김유경 · 김미경 (2013). 기독교 유아교사의 신앙성숙도와 빈곤에 대한 사고와의 관계. **사고개발**, 9(3), 23- 41.
- [Kim, Y. K. and Kim, M. K. (2013). A Study on Relations between Faith Maturity and Thinking towards Poverty among Christian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Korean journal of thinking & problem solving*, 9(3), 23- 41.]
- 김유진 (1996). **실존적 공허수준에 따른 가치관과 사회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울산대학교.

[Kim, U. J. (1996). *A Study on value orientation, sociability and existential vacuum*.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박명준·신성만 (2014). 청소년의 영적 안녕감이 인터넷 게임, 사이버섹스, 스마트폰 사용을 통한중독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5(2), 753-771.

[Park, M. J. and Shin, S. M. (2014) The Effects of Spiritual Well-being on Addictions to Internet Games, Cybersex, and Smartphone Use among Korean Youth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5(2), 753-771.]

박선실·이준석 (2002). PIL의 문화적 타당성 검토 및 대학생의 삶의 목적수준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학논총**, 22(2), 59-75.

[Park, S. S. and Lee, J. S. (2002). A research on the cultural validity of PIL and the level of the purpose in life among undergraduate students. *Th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22(2), 59-75.]

박진희·전요섭 (2013). 기독교청년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스마트폰 중독과 영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신앙과 학문**, 18(4), 57, 141-164.

[Park, J. H. and Jeon, Y. S. (2013). Relationship among Covert Narcissism, Smart Phone Addiction and Spiritual Wellbeing in Christian Adolescents. *Faith and Scholarship*, 18(4), 57, 141-164.]

박현정 (2005). **자원봉사활동과 영성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Park, H. J. (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olunteer Activity and Spirituality*.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백은령·손병덕 (2017). 기독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변인 연구: 사회·인구학적 변인, 학교성적,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22(1), 157-176.

[Paik, E. R. & Sohn, B. D. (2017). A Study On The Variables Affecting On The Life Satisfaction Among Christian Adolescents: Focusing On Socio-Demographic Variables, School Attainments, Church Attendance. *Faith and Scholarship*, 22(1), 157-176.]

볼런티어 21 (2011). 2011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실태 조사 연구**.

[Volenteer 21 (2011). 2011 *National volunteer activity and donation survey research*.]

송민선·김남초 (2011). 노인의 영적안녕, 영적요구 및 우울 간의 관계. **노인간호학회지**, 13(1), 29-36.

[Song, M. S. and Kim, N. C. (2011). Spiritual Well-being, Spiritual Needs and Depression among Community-dwelling Korean Elders. *Journal of Korean*

- Gerontological Nursing*, 13(1), 29-36.]
- 신승범 (2015). 기독교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다사용문제에 대한 기독교 교육적 대안. **기독교교육정보**, 46, 251-277.
- [Shin, S. B. (2015). Alternatives from Christian Education for Christian Adolescents' Excessive Smart Phone Use. *Korea society for christio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46, 251-277.]
- 심수현 (2012). 도박심각도, 삶의 만족도, 영성과의 관계 연구. **상담학연구**, 13(3), 1065-1081.
- [Sim, S. H. (2012). A Study on the Relation among Gambling Severity, Life Satisfaction, and Spiritualit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3(3), 1065-1081.]
- 양은미 (2012). 대학 신입생들의 영성과 대학교육의 역할에 대한 탐구. **교양교육연구**, 6(1), 289-328.
- [Yang, E. M. (2012).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ity of College Students and Roles of Higher Educatio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6(1), 289-328.]
- 이명화 · 강희경 · 박진경 (2003). 간호대학생들의 영성에 관한 연구. **전인간호과학 연구학술모음집**, 2, 7-22.
- [Lee, M H., Kang, H. K., and Park, J. K. (2003). The Spirituality of Students at Nursing School in University. *Holistic Nursing Science Research*, 2, 7-22.]
- 오윤수 · 정현태 (2013). 영성과 사회복지에 대한 소고: 개념에 대한 분석 중심. **영성과 사회복지**, 1, 107-123
- [Oh, Y. S. and Jung, H. T. (2013). Thoughts on Spirituality and Social Welfare: With focus on the analysis of the concept. *Journal of Spirituality and Social Welfare*, 1, 107-123.]
- 이성범 (2011). **기독교인의 자기분화 정도와 사회향성-자율성 수준에 따른 신앙 성숙도의 상관관계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 [L, S. B. (2011). *A Study of Correlation between Sociotropy-Autonomy Level and Faith Maturity According to Self-Differentiation Levels of Christians*. Doctoral thesis. Chongshin University.]
- 이화인 (2002). 일부 간호대학생의 영적안녕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구. **한국간호과학회**, 32(1), 7-15.
- [Lee, H. I. (2002). Correlation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Mental Health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2(1), 7-15.]
- 정숙희 (2013). 기독교 대학생의 우울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영적 성숙의 조절효과.

- 신앙과 학문, 18(2), 107-133.
- Jeong, S. H. (2013). Moderating Effect of Spiritual Matur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f Christian College Students. *Faith and Scholarship*, 18(2), 107-133.
- 정숙희 · 유장춘 (2006). 영적 안녕과 자아존중감의 관계 그리고 교회사회사업적 적용에 관한 연구. *교회사회사업*, 4, 237-264.
- [Jeong, S. H. and Yu, J. C. (2006). The Influence of spiritual Well-being on Self-esteem and its implication to Church Social Work. *Church Social Work*, 4, 237-264.]
- 조삼복 · 김성희 (2012). 대학생용 영성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3(2), 877-890.
- [Jo, S. B. and Kim, S. H. (2012). Development of a Spirituality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3(2), 877-890.]
- 최순옥 · 김숙남 (2011). 대학생의 자살생각과 영성.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7(2), 190-199.
- [Choi, S. O. and Kim, S. N. (2011). Suicidal Ideation and Spirituality of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7(2), 190-199.]
- Basset, R. L., Sadler, R. D., Kobischen, E. E., Skiff, D. M., Merrill, I. J., Atwater, B. J., & Livermore, P. W. 1981. The Shepered Scale: Seperating the Sheep from the Goat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9(4), 335-351.
- Berry, D. M. & Adams-Thompson, E. 2008. Religiosity and Depression over Time in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iatric Nursing Research*, 13(2), 18-26.
- Cowley, A. S., & Derezotes, D. 1994. Transpersonal psychology and social work education.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30, 32-42.
- Canda, E. R. (1990). An holistic approach to prayer for social work practice. *Social Thought*, 16(3), 3-13.
- Canda, E. R. & Furman, L. D. (1999). 박승희 · 이혁구 외 역 (2003). 종교사회복지 실천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Crosby, R. C. (2012). The social network gospel: how interconnectivity helps us better engage the Bible. *Christianity Today*, 56(6), 36-40.
- Hill, J. P. & Dulk, K. R. D. (2013). Religion, Volunteering, and Educational Setting: The Effect of Youth Schooling Type on Civic Engagement.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52(1), 179 - 197.
- Newman, S., Vasudev, J. & Onawola, R. (1985). Older volunteers' perceptions of

- impacts of volunteering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4, 1234-127.
- Hoge, D. R., Zech, C., McNamara, P. & Donahue, M. J. (1998). The value of volunteers as resources for congregation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7(3), 470-80.
- Johnston, J. B. (2013). Religion and Volunteering Over the Adult Life Course. Department of Sociology Indiana University.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52(4), 733-752.
- Kim, Y. I. (2006). Religion and Volunteering: Exploring the Links between Spirituality, Moral Attitudes, and Charitable Participation. Conference Papers, *American Sociological Association*, Annual Meeting, Montreal, 1-19.
- Ko, K. S. (2015). A Phenomenological Case Study on the Psychological and Spiritual Conflict Resulting from Excessive Use of Smartphones- Focused on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Indian Journal of Science & Technology*, 8(S1): 398-404.
- Krause, N., Hayward, R. D., Bruce, D., & Woolever, C. (2013). Church involvement, spiritual growth, meaning in life, and health. *Archive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35, 169 - 191.
- Lin, T. T. C., Chiang, Y. & Jiang, Q. (2015). Sociable People Beware? Investigating Smartphone Versus Nonsmartphone Dependency Symptoms Among Young Singaporeans.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43(7), 1209-1216.
- Lima, C. & MacGregorb, C. A. (2012). Religion and Volunteering in Context: Disentangling the Contextual Effects of Religion on Voluntary Behavio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7(5), 747 - 779.
- Mollidor, C., Hancock, N. and M. Pepper (2015). Volunteering, religiosity and well-being: interrelationships among Australian churchgoers.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18(1), 20-32.
- McCullough, M. E., & Larson, D. B. (1999). Religion and depress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Twin Research*, 2(2), 126-136.
- Meier, S. & Stutzer, A. (2008). Is volunteering rewarding in itself? *Economica*, 75(297), 39 - 59.
- Wilson, J., & Musick, M. (1997). Who cares? Toward an integrated theory of volunteer work.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5), 694 - 713.

논문초록

기독교 대학생의 영성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고기숙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스마트폰 중독, 일반적 특성이 영성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여, 대학생의 영성발달 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기독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고, 자료수집 설문 기간은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였다. 자료 분석은 SPSS를 통해 다중회귀분석 등의 방식을 활용하였다.

기독교 대학생의 영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 특성들 중에서 가정경제수준, 교회출석 여부, 교회출석 기간 등이 영성 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활동 특성 중에서, 자원봉사활동기간이 영성발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마트폰 중독과 영성발달의 관계는 유의미한 영향이 도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교회와 기독교 차원에서 기독교 대학생의 영성발달을 증진을 위해, 교회출석을 증진시키고,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에 관하여 제언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중독과 영성발달의 관계에 대한 후속 연구를 실시해 볼 것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기독교 대학생, 영성발달, 자원봉사활동, 스마트폰 중독, 교회출석